

2013.01
www.dail.org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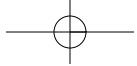
다일 공동체

처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약1:27)

서울시 뮤지컬단에 의하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려졌던
뮤지컬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공연을 마친 후 무대세트에서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C O N T E N T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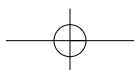
- 02 Focus 밥&꿈 꿈꾸는 밥퍼
- 04 아름다운변화 졸업 그리고 새로운 시작
- 05 다일 사랑니눔 바자
- 06 Review 거리성탄예배 / 뮤지컬밥퍼
- 08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작은천국
- 10 해외 다일의 현장 베트남다일공동체
- 12 해외 다일의 현장 캄보디아다일공동체
- 14 국내 다일의 현장 설곡산다일공동체
- 18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cover story

비록 뮤지컬 무대였지만
 처음 시작할 때 마음으로 그 시절
 다일공동체 앞에 서 보았습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다짐해봅니다
 처음처럼...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Focus 밥&꿈 꿈꾸는 밥퍼

떡찌는 밥퍼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사랑

2013년 밥퍼 주방에서는 밥 나눔의 기적뿐만 아니라 떡 나눔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2013년에는 밥퍼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떡퍼' 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작년 12월부터 밥퍼에 있는 떡방앗간에서 시범적으로 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떡퍼는 일자리창출과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감당하려합니다.

현재 밥퍼에서 정성을 들여 만들어진 가래떡과 떡국떡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빠지지 않고 먹는 떡국과 간식거리로 구워서 먹기 제맛인 가래떡은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질 좋은 떡은 착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떡을 뽑고 자르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에 밥퍼 스텝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스런 손길을 듬뿍 담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에 다양한 떡을 만들고, 많은 양을 제작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사업으로 진행될 '떡퍼' 에

밥퍼 만큼이나 많은 관심 갖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입 뿐만아니라 쌀나눔, 재능(떡만들기)봉사, 제작 및 판매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 0365로 해주세요!!



모락모락 김이나는
양금 뽕은 떡을 가지런히 놓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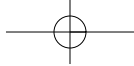
적당히 식은 떡을 자르고 랍고
손발이 척척 막네요



포장을 마친 떡은 이웃들에게 판매되고
판매된 수익금은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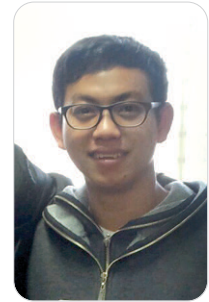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변화

졸업 그리고 새로운 시작



캄보디아에서 유학 온 청년 리비다를 만나 보았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듣는 수업은 어려웠지만, 낯선 한국 땅에서 외로움도 있었지만
2년동안 대학공부를 잘~마친 리비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졸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다일공동체와 조용근 회장님(세무법인석성)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유한 온 리비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다 배울 수 없었던 부분의 공부를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온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낯선 나라, 낯선 문화, 낯선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이 잘 안 되어서 학교의 한국 친구들과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으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선린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며 저는 2년 동안 많은 과목들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활방식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못 본 것들과 상상도 못 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은 한국사람들 뿐만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성격이 잘 맞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했고, 성격이 잘 안 맞는 친구도 만났습니다^^; 유학을 온 외국인으로써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공부하기까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공부한 시간들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과에 관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시간이 날 때 한국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이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하러 온 캄보디아 아이들이 한국에서 수술을 잘 받고 캄보디아에 돌아가기까지 통역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후원자님의 후원과 관심의 2년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닌 지식과 생각과 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후원자께서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제가 여기에서 배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제가 받은 지식을 실천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보내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신 다일 가족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글 / 리비다





Review

Review

거리성탄예배

뮤지컬 밥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드리는
25번째 거리성탄예배

밥퍼 앞마당과 이면도로는 성탄축하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다리고 계신 밥상공동체 가족들과 무의탁 어르신들과 노숙인들과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차고 넘쳐났습니다.

이미 2,500여 명의 소외된 이웃들이 차가운 날씨도 아랑곳없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밥 한 그릇과 방한복과 선물을 받기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25년간 지속하여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25년 전 맨 처음으로 얼어터진 손 호호, 후후, 하 하 불면서 초 한 자루 켜놓고 쌍굴다리 아래에서 성탄예배를 드릴 때부터 있었던 다일의 영성과 고독과 낮아짐과 섬김이 여전히 있었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최초의 거리성탄예배에 함께했던 유만우 형제의 인사말과 다일 밥상가족 대표로 최용철 형제님이 낭독한 오늘의 감사편지는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차가운 거리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경배하는 '밥퍼'는 주님의 은혜로 따뜻하기만 합니다.



최초 거리성탄에 함께했던 유만우 형제(좌)와 감사편지를 낭독한 최용철 형제(가운데)



뮤지컬장을 찾은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



공연포스터 앞에서 사진도 한 장 찰칵!



뮤지컬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긴 책도 읽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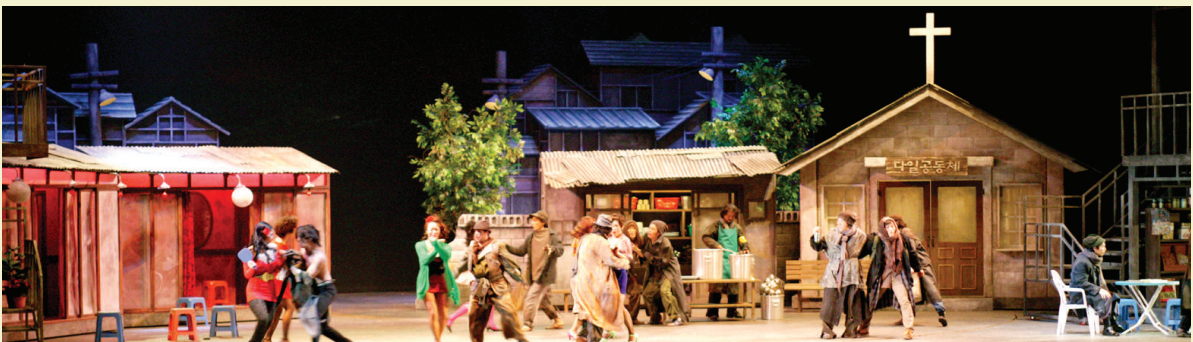


공연의 감동은 나눔으로 이어졌어요

나눔의 현장이 뮤지컬의 현장으로 뮤지컬 밥퍼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뮤지컬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하 밥퍼)은 연말연시 많은 아들에게 감동과 희망과 사랑을 전하며 성황리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 막은 내려졌지만 '뮤지컬 밥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가난을 모르고, 어려운 삶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가난과 나눔과 청춘과 열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젊은 날의 방향과 고민과 꿈과 희망을 잠시나마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고,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면 다일공동체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청량리 588에 세워진 다일공동체가 함께한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도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



오늘은 노숙인, 무의탁 노인도 당당한 문화 관객!

밥퍼의 어르신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밥퍼를 보러 오셔서 한 이야기입니다.

“와아,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좋은 극장이 이렇게 생겼구먼” “좋다. 참 좋아!”

거칠게 살아왔던 분들도 유순한 양이 되어 혹시나 잃어버릴세라 미리 나누어드린 좌석표를 손에 꼭 쥐시고 유치원 생들처럼 한 줄로 서서 공연장으로 들어가시던 모습이 한동안 우리 마음을 울렁이게 했습니다. 늘 늦게 가면 내 것이 없다는 불안감으로 다일의 행사 때마다 새벽바람을 가르며 맨 앞줄에 자리를 맡아 놓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이셨는데...세종문화회관에서 받은 입장권을 미리 받아두고 내 자리가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세종문화회관이 주는 상징적인 품위 때문인지 모두들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역력했고 눈물겨웠습니다. 다일의 홍보대사님들과 스태프들이 그분들을 정문에서 맞이하고 안내하고 입장시켜드리면서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순간순간마다 환호성이 터졌고 지켜본 일반 관객들도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객석에 난생 처음 앉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시지만 천여명에 가까운 무의탁노인들과 노숙인들을 당당하게 관객으로 대접해 드리길 정말 잘했다!! 너무도 잘했다!! 고백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작은천국**



새해 소망을 담아 밝게 빛을 밝혀줄 등불을 입소자분들이 열심히 만드십니다.
 '새해 어떤 소망들을 갖고 계실까요?' 각자가 품은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길 다일작은천국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작은 천국의 새해 소망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다일작은천국에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후원천사님들과 자원봉사자님들 모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가까워지시기를, 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어 풍성하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일작은천국은 이제 만 2년을 향해 달려가는, 아직은 어설피고 미약한 작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을 섬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것도 평생 상처로 얼룩진 채 삶의 터전도 다 포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등돌린 채 홀로 쓸쓸히 낙엽처럼 나부끼던 인생들의 꺼져가는 촛불을 지켜본다는 건, 솔직히 저희에게도 참 버거운 사명입니다.

굳이 피할려면 피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들의 마지막 생명을 조금이나마 보듬어드려야 하는 일이라면, 그 '누군가' 가 바로 '나' 입을 깨닫고 감당해야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저희의 사명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이 참 우울하고 슬픈 일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관점을 달리 하면, 사실, 이보다 더 값지고 보람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모든 일들은 그 아무리 성대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세상 일에 국한되고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일작은천국은 이 땅의 끝지점에서 다시 저 하늘 영원으로 잇대어있는 바로 그 교차점에 있기에, 천군천사들이 팡파레를 울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두 팔 벌리며 기다리시는 천국문을 향해 보내드리는 일이기에, 머잖은 날 저 천국에서 반가운 재회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에, 저희는 형언할 길 없는 비밀한 기쁨으로 이 작은 천국의 시민들을 섬기곤 합니다.

하지만, 어디 이 일이 저희만의 사명이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수로 이 벽찬 사명을 저희끼리만 감당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뻘뻘 흘리며 섬김을 실천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향기로운 제물을 보내주시는 얼굴 없는 후원천사들의 나눔 참여가 아니면, 사실, 이 사명은 불가능하지요.



지난 성탄절에 찾아와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준, 성혜선 선생님과 꼬마 천사들의 정기 봉사활동 '작은 음악회'

새해의 벽두에 서서 설레임으로 또 한 해를 가만히 그려봅니다.

올 한 해는 또 어떤 분들을 저 천국으로 보내드리게 될까?

올 한 해는 또 어떤 섬김의 천사들이 찾아오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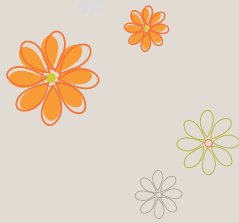
올 한 해는 또 어떤 나눔의 후원 천사들이 찾아오실까?

글/ 이명현 원장(다일작은천국)

해외 다일의 현장 베트남다일공동체

Vietnam

함께 웃고 울며 더불어 살고자하는 마음하나!



포스코ICT직원들의 공연



1등상품 자전거를 받고 기뻐하는 아이

12월의 성탄절을 생각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눈, 산타크로스, 선물 등이 떠오릅니다. 베트남의 12월은 1년 중에 가장 시원 한 달이기는 하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입니다. 베트남은 불교의 나라 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맞아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전등과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식들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주요 도로는 차량 통제를 해도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듭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모르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 센터에서도 뜻 깊고 즐거운 행사를 했습니다.

착한기업, 지금 만나러 갑니다!

* 포스코 ICT와 다일공동체와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포스코 ICT의 베트남 사무소는 행복 나눔 125의 실천을 위해 지난 2010년 5월부터 매월 2회 꾸준히 '밥퍼'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봉사와는 별도로 특히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쌀 등 필수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 ICT의 '행복나눔 125'는 어떤 운동인가요?

행복나눔 125는 매주 1가지 선행하기, 매달 1회 봉사, 한 달에 좋은 책 2권 읽기, 하루에 5가지 감사하는 것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상에서 감사하고 보람과 만족을 찾으며 직원들의 정서를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 이번에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바자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행사는 어땠나요?

네, 포스코 ICT본사에서 1년에 한번씩 행복나눔 125성과를 축하하는 '행복 나눔 페스티벌'을 실시하는데 2012년 12월 7일에 실시된 행사는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 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로 열렸습니다.

<사랑의 바자회>에는 베트남 직원들도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베트남의 유명한 커피나 말린 과일들을 판매하고 베트남 '밥퍼' 봉사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밥퍼 봉사는 회사 내부에서도 소중한 '행복 나눔의 실천'의 하나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 수익금 전액을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 배식비로 후원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이 모든 봉사활동에는 주재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된 베트남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지 직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직원이 하나가 되고, 사랑과 감사의 미덕이 널리 퍼져 나가고 있어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밥퍼는 참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포스코 ICT도 그 중 한 기업입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봉사활동 및 지역주민 돕기에 앞장서서 묵묵히 봉사활동에 임하는 포스코 ICT베트남 사무소 및 한국 본사 직원 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더 감동하고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주시는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크리스마스

베트남 다일공동체가 성탄절을 맞아 "밥퍼 행복 나눔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행사에 필요한 무대장식과 상품을 직접 준비하였고 재미있는 율동과, 지역주민들의 노래자랑, 게임 및 경품추천 등 모두가 함께 어울려 박수 치며 노래도 부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흥겨운 시간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냐고 저희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 주시기에 가능 한 일이라고 말 합니다. 불가능 할 것 같은 일들이 베트남 밥퍼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웃고 울며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줄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사랑은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나누는 즐거움을 아실 것입니다. 주는 기쁨! 그것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나누는 기쁨과 행복을 만끽해 보시기를 기도 합니다.

글/ 이종현 원장(베트남다일공동체)

다일의 현장 캄보디아다일공동체

Cambodia

꽃들에게 희망을...

후원회원님 덕분에 꽃과 같은 아이들이
잘 자라나 열매 맺고
그 땅의 희망을 그려갑니다.



17살 썩케인(왼쪽)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동생들과 공부하기 썩스러울만도 한데 공부할 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참 기뻐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입니다.

2013년 새해 첫 소식으로, 밝아오는 새 희망과 같은 결연아동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캄다일의 아동결연 아이들 중에 8명이 고등학교 진학을 했다는 기쁜 소식부터 전합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버느라 공부는 늘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썩케인이란 아이는 신상명세카드를 잊어버려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 학교 선생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드린 끝에 17살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늦도록 초등학교는커녕 고등학교, 대학 공부 는 꿈도 꾸지 않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착실히 공부를 잘 해나가고 어리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하고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기 일쑤 였던 아이들과 부모님들까지 설득시키고 애를 태우며 아이들을 쫓아다니던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감사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결연아동들을 후원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아픈 일들을 겪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쓰리야와 윈스라이나잇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두분 모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 가족들 모두 충격과 슬픔이 컸습니다. 그러나 큰 슬픔을 겪은 후에 아이들이 부쩍 성숙해짐을 느낍니다. 자신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저희에게 찾아와 내어놓기도 하고 주일에 배와 성경공부모임에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것이지만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캄다일은 아동결연 사역을 위해 땀흘리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결연을 맺고 교복, 수업료, 쌀, 학용품등을 지원하고 센터의 방과후교실 수업들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아이들의 가정형편 등을 살피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캄보디아 가난한 마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 결연으로 돕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며 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아이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할 씨앗이 되어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로 맺어가며 캄보디아의 희망이 되어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해에도 날마다 캄보디아는, 어꾼 뿌레야예수!!(예수님 감사합니다!!)

글/ 캄보디아다일공동체



국내 다일의 현장 설곡산다일공동체



전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영성과 침묵의 성지인 설곡산다일공동체는 2012년 12월 31일 송구영신의 시간부터 2013년 1월 4일 까지 141번째 제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영성수련이 열렸습니다.

이제까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 받고 치유 받아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 누리고 있기에 영성수련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 없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아는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영성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혼과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영성수련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 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어제 오늘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전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곡산 영성수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전해 주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뚱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생각과 느낌의 사슬에 매여 홀로 외로워하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름다운세상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영성수련을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2013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 받아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 벌써부터 영성수련을 위해 기도드리게 됩니다.

글/ 최홍 목사(설곡산다일공동체)

다일영성수련을 통해 만난 아름다운세상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썩 분탄입니다. 한국에 처음 올 때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나라에서 없는 아름다운 산이 많고 높은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 특히 길이 너무 많아서 사람의 혈관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수 없는 지하에도 많은 길들이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설곡산에서 훈련 받는 일이라 하면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일은 힘을 쓰는 일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제 마음과 제 근심을 잘 되게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을 청소하며 더럽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할때 힘들고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며 제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복 된 사람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일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성수련을 통해 용서하는 것과 평화를 만드는 것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너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깊이 생각하다보니 정말 나를 들여다보고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일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저는 사랑의 나눔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성수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수련을 통해 근심가득한 사람의 삶이 희망을 갖게 되고 무엇이 잘못 되고 무엇이 맞는지 아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평화를 주며, 나누는 것을 알게 되어 겸손하게 되고, 평화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장점이 많은데 제가 다 얘기를 못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일영성수련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도 영성수련이 진행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일의 모든 가족 분들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글/ 분탄 간새(캄보디아다일공동체 프놈펜지부)



D.T.S 훈련을 마치며 분탄간사 가족과 함께



**MANUKA
NATURALS**
PURE NEW ZEALAND



밥퍼 최일도 목사와 함께하는 매직 포 윈 Campa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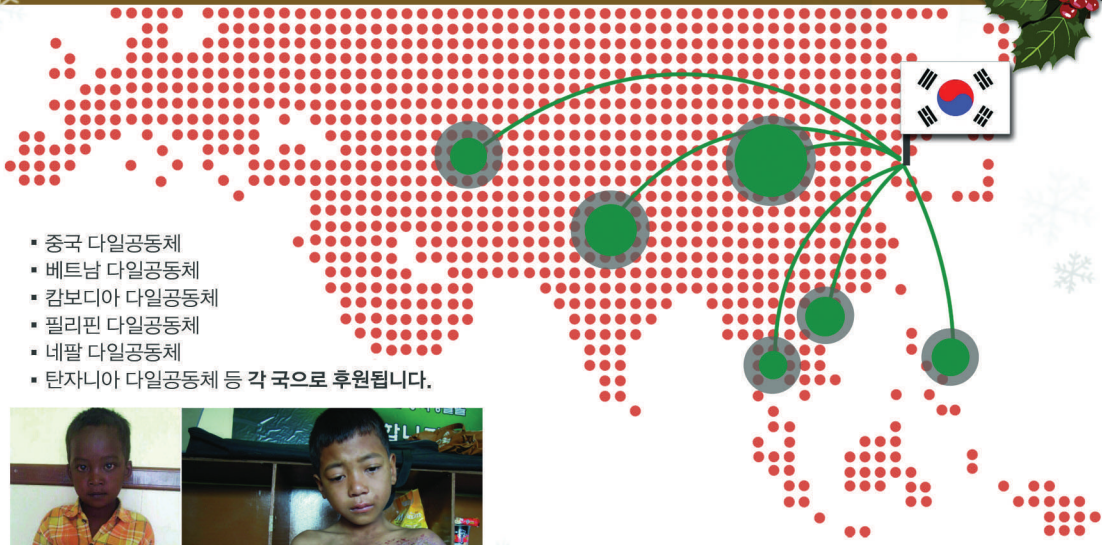
사랑..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누카매직 허니크림을 구입하시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빈민촌 아이들에게 동일한 제품이 전달됩니다. 아토피와 각종 피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해주세요~

작은 형제 **최일도** 목사 올림

Magic for One

마누카내추럴 제품 1개를 구입하시면 [2012 아토피케어엑스포]에서 “천연아토피 우수제품” 을 수상한 **마누카매직크림** 1개가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빈민촌 아이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문의 1588-9803

NAVER 마누카내추럴 ▼ 또는 허니케어 ▼ 를 검색해보세요!



- 중국 다일공동체
- 베트남 다일공동체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필리핀 다일공동체
- 네팔 다일공동체
-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등 각 국으로 후원됩니다.



www.honeycare.co.kr (공식 쇼핑몰) www.manukanaturals.co.kr (공식 홈페이지)

협력업체



NAVER 해피빈

I PARK mall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서울대한아토피협회
SEUL ATOPE ALLERGY ASSOCIATION

케어 뉴질랜드
마누카내추럴

다일 공동체를 후원하시는 회원님들이 **다일 플라워에서** 꽃을 사용해 주시면 **사용금액의 20%**는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사랑의
꽃배달
서비스**

다일공동체를 후원하시는 회원님들이
다일플라워에서 꽃을 주문하시면,
사용금액의 20%가 다일공동체로 기부됩니다.
꽃구입과 함께 후원이 되는 사랑의 꽃배달
이용방법은 dail.flowerzip.com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주문합니다.
감사한 분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꽃으로 마음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보세요!

dail.flowerzip.com

DAIL NEWS



01 <다일복지재단> 캠핑협회협약식



02 <다일평화의마을> DTS훈련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 내 분 원 소 식

01 다일복지재단

캠핑협회협약식

12월 10일 캠핑협회와 다일꽃집(dail.flowerzip.com)의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캠핑협회에서 다일꽃집을 통해 각종 행사에 꽃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20%는 다일공동체에 기부가 됩니다. 앞으로도 캠핑협회와 다일공동체의 더 많은 협력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것을 기대해봅니다.

02 다일평화의마을

DTS훈련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목안리 평화의 마을 DTS훈련원에서는 요즘 활기가 넘칩니다. 새로운 훈련생들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노동기도도 하고, 진지준비도 하는 시간들을 훈련생들은 더 없이 기쁘고 행복해합니다. 25기 새로운 얼굴들은 우선영(엔젤님)자매와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유학온 리일(봄단비)형제와 리비다(행운님)형제이며, 24기 목정수(조아님)형제도 함께 훈련을 받고있습니다. 모두들 훈련

을 잘 마치고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03 예향어린이집

유아안전교육 - 소방안전교육

12월 10일,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소방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방 안전교육의 주제는 '대피동경로를 알아봐요' 로서 친구들이 예향어린이집에서 불이 났을 때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이 난 장소마다 대피하는 길이 다름을 알고 어느 방향으로 대피해야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 동영상자료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예향어린이집 친구들이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준비한 알뜰바자회가 12월12일에 열렸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이나 책, 옷 등을 모아온 친구들은 바자회 전부터 기대에 차있었습니다. 바자회에 직접 성금을 들고서 친구들이 가져온 물품들을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며 쇼핑백에 한 가득 담아 집에 가져갈 때는 엄마, 아빠께 오늘 바자회에서 구입한 물품을 자랑하느라 입가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유아들의 경제활동과 접목시

켜 바자회를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미술경제교육(지역사회연계활동)

지난 12월 14일, 예향어린이집 친구들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방문하여 경제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예향어린이집 친구들의 연령이 어린 편이라서 미술과 함께 경제교육이 이루어져 우리 친구들의 흥미가 매우 높았습니다. 미술과 함께 동전을 저금하니 큰 돈으로 바뀌는 미술을 보며 경제개념도 배우고 지팡이가 손수건으로 바뀌고 꽃으로 바뀌는 등 재미있는 미술도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술이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2월 생일잔치

12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도, 생일을 축하해주던 친구들도 모두 함께 어린 시절의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감사기도를 드리며 친구들이 나누어주는 생일선물도 받으며 우리 친구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했던 즐거운 생일잔치였습니다.



영합니다. 03 <예향어린이집> '불이냐면 이렇게 대피해요!' 04 <네팔다일공동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05 <미주다일공동체> 홈리스센터에서 함께한 성탄절

해 외 분 원 소 식

04 네팔다일공동체

네팔 뜻 깊은 성탄절

높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네팔다일공동체 가족들은 참으로 뜻 깊게 보냈습니다. 평상시에는 400여 명의 아이들이 밥퍼를 찾는데 지난 성탄절에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밥퍼 옆 공터에서 특별무대를 만들어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네팔 기독교단체와 마을교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마을의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천개의 성탄선물을 준비했는데 모자라서 스태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넉넉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팀

자원봉사의 개념이 없는 네팔에서 그것도 빈민촌 아이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훈련시켜 스스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지만 차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가 이어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13년도에는 2기 자원봉사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더욱 알찬 열매를 맺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팔의 청소년, 청소년 축구팀

2012년도에는 미국의 정선희, 정인자 후원자님을 통해 청소년축구팀을 만들어 아이들과 동네에 큰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미주순회집회를 통해 시카고의 이숙의 후원자님들을 통해 2013년도에는 청소년축구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모계사회이며 남성들보다 더욱 열심히 사는 여성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차옵니다.

네팔다일기술학교의 희망열매

2012년도에는 뉴욕의 박미자 후원자님을 통해 네팔다일기술학교(재봉기술학교)를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랑의열매를 통한 대안생리 대사업으로, 직업이 없는 10명의 빈민촌 여성들의 직업훈련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는 실제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희망의 열매들이 맺히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2기 직업기술학교에서 배울 10명의 여성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05 미주다일공동체

여러분 덕분에입니다.

2012년도 한해는 미주지역의 후원자님들

이 계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한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려는 후원회원님들의 마음이 잘 전달된 한해였습니다.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3세계 가난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전해져 희망의 씨앗이 심겨져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덕분에입니다.

홈리스센터에서 함께한 성탄절

지난 성탄절에는 애틀란타 여성홈리스센터를 방문하여 성탄절 아침밥퍼를 하고 200여명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했습니다. 지난 2004년도부터 시작한 성탄절 행사가 9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매년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리스트를 받아 선물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주로 따뜻한 점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멋진 상품권을 선물했는데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미주밥퍼팀장(정제인 자매)의 지인이 사역하는 찬양팀이 합류하여 함께 찬양하고 캐롤을 불렀는데 아이들과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성탄절 새벽부터 수고한 미

DAIL NEWS



06 <베트남다일공동체> 가정방문을 했어요



07 <중국다일공동체> 예화야 결혼 축하해

주باط팀원들과 찬양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생명나눔운동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지구촌의 가난한 빈민촌 어린이들을 위한 '지구촌생명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틀랜타 여성홀리스센터의 어린이들에게 성탄선물과 성탄절 특식을 나누었고,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 아이들에게는 형편에 따라 새해에 학용품들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모금운동은 1월 말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 특별모금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주다일공동체 사무실(P.O.Box 337, Suwanee, GA 30024)로 연락(770-813-0899)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영수증 발송 작업

지난 2012년 한해동안 후원해주신 후원금에 대한 Tax 보고용 영수증을 후원자님댁으로 발송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무실 인력이 부족하여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수증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미주다일공동체 사무실로 연락주셔서 긴급한 실장에게 말씀해주시면 우선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여름 비전트립팀 모집

2013년도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제3세계 선교현장을 찾아 봉사하는 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트립을 통해 미국에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의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다일은 오늘도 제3세계 다양한 현장에서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06 베트남다일공동체

헝시바목장 식구들과 가정방문

사이공한인연합교회 헝시바목장 식구들과 빈흥화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헝시바 목장 가족들이 준비해 온 쌀, 라면, 양념, 간식과 필요에 따라 쓰시라고 작은 정성도 함께 전해 드렸습니다. 선물을 전해 받아 즐거운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아무도 찾지 않아 외롭게 지내던 분들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정을 전해준 헝시바 가족들로 인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성광고등학교 동문회

호치민에는 많은 동문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광고등학교 동문들께서 밥퍼 사역지에 오셔서 봉사와 후원금도 주

시고 축구복과 과자도 가지고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동문들도 봉사와 후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치민 국립 산업대학생 공연

호치민 국립 산업대학교 학생들이 밥퍼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 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베트남 전통 춤을 비롯하여 치어리더 공연, 강남스타일 춤 등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평소에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바로 앞에서 보며 감탄하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런 행사들을 자주 마련해야겠습니다.

07 중국다일공동체

림예화 결혼식

11살에 중국 다일 어린이집에 들어와 성장한 림예화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일도 목사님과 김연수 사모님께서 결혼 선물을 가득 보내주셔서 결혼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결혼 풍습대로 다일 공동체 가족들이 축기도 부르고 강남스타일에 맞춰 춤도 추고 꽃도 뿌리며 즐거운 결혼 파티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는 예화의 모습을 보니 감사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이제 세상가운데로 나



07 <중국다일공동체> 성탄절날 찾아온 반가운 신타



08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09 <필리핀다일공동체> 책 읽어주는 룯선생님

아가 사랑을 증거 할 예화를 축복합니다.

아기 김송이와의 짧은 만남

태어나자마자 화장실에 버려져 응급실을 거쳐 다일어린이집에 왔던 송이의 백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출생일은 모르지만 온 가족이 송이를 맞이한 날로부터 병원에 있던 기간을 추정하여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처음 올 때만 해도 숨가빠하던 송이가 이제는 불과 팔, 다리가 볼록해진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백일잔치를 끝으로 백 일간 다일어린이집의 막내로 사랑을 받았던 송이가 너무나 좋은 새 부모님을 만나서 입양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었던 새 부모님은 아기를 안고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송이가 좋은 부모님과 행복한 삶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서운한 마음 뒤로하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중국다일어린이집 김장

울겨울에도 변함없이 다일어린이집에 김장을 온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중국은 겨울이 길어서 김장과 채소를 말리거나 절이는 일이 큰 행사입니다. 아이들이 함께하다보니 최신 음악을 들으며 만들던 중 한 아이가 두 포기씩 김치를 버무리고 나르며 온 집안 여기저기 고춧가루가 묻었으나 100여포기의 김치와 120포기의 썬안채(중국식 절임 배추)가 참 맛있는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볼거리에 걸린 현희

중학교에 다니는 현희가 학교에서 볼거리가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희가 속히 회복되도록, 어린 아이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함께 중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만남

올 크리스마스에는 10년전, 6년 전 중다일에서 각 1년간 봉사한 한기도 삼촌과 정지선 이모가 훈춘에 오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함께 공부하고 울고 웃었던 삼촌과 이모가 오자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다일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 마웨와 최원삼의 어머니인 미국 시카고의 이숙의(스마일)님과 상해의 이연호님, 홍콩의 강영남 권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비를 보내주셔서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08 탄자니아다일공동체

개원예배와 밥퍼나눔

청량리에서 퍼진 밥과 사랑이 이 곳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전합니다. 1월 11일 11시 쿤치 채석장 공터 바닥에 천막치고 개원예배를 드린 후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밥으로 전합니다.

09 필리핀다일공동체

다일 꿈도우미 도서관 개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주최한 공모전에 당선된 사업인 도서관 프로젝트는 500권이 넘는 도서와 교구들을 비치하였고, 드디어 12월 3일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개관식을 갖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보잘 것 없는 한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듯이 필리핀의 아주 작고 외진 동네 까비떼 말리아라는 곳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만한 지도자가 배출되리라는 꿈을 품어봅니다.

꿈도우미 도서관을 돕는 꿈천사

아직도 책장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1만원(\$10)이면 한권의 양서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보내시는 당신은 꿈천사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2013년 필리핀 다일공동체는 자봉사사자 및 후원천사님들을 기다립니다. 짧은 단기 선교라도 찾아오시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치아가 아픈 아이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처치밖에 할 수 없는 현지이기에 치과를 포함한 의료선교팀의 방문도 환영합니다.

DAIL NEWS



"나는, 자랑스러운
다일의 자원봉사자"



외교통상부, 서울메트로
외교통상부 직원들과 서울메트로에서 온 봉사자들이 함께 봉사하고 마무리 사진도 찍었습니다. 오늘은 소속 단체를 말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눔과 섬김에 동참하는 밥퍼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나눔스토어
나눔스토어에서 봉사하러 오며 쌀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을 나눔 수 있음에 참 감격하며 즐겁게 봉사하며 돌아왔습니다.



희망교육연구소
희망을 만들어내는 희망교육연구소에서 밥퍼에 희망을 전하러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눔과 섬김으로 희망을 전해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경희초등학교
경희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김치를 밥퍼 어르신들께 전하러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고사리 손으로 만든 김치지만, 아무지게 무쳤으니 맛있게 드세요.'



박수훈 가족
딸의 백일을 맞아 가족이 밥퍼로 총출동했습니다. 아이의 백일의 기쁨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자 찾아온 아름다운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족에게 마음담아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들학교
우리들학교에서 첫 밥퍼봉사했습니다. 학생들이지만 아무진 손놀림이 첫 봉사 답지 않습니다. 밥퍼 봉사에서 자주자주 보았음 좋겠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많은분들이 함께 밥퍼를 찾아 주셨는데요, 봉사에 성실히 동참해주시고 후원도 하셨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 전합니다.



글로벌비건코리아
대규모의 인원이 사랑의 밥퍼나눔행사라는 현수막 아래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거리성탄예배를 위해 후원도 했습니다.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는 여러분 참 멋지십니다.



동아제약
동아제약 강신호회장과 임직원들이 밥퍼봉사와 함께 어르신들 힘내시라고 박카스와 비타민 등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관심과 사랑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12년 11월 27일~12월 31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12월 신규후원

(사)한국감정평가협회, (재)한국부동산연구원, (주)글로벌부동산중개, (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주)로크웰오토메이션코리아, (주)박케이우홀딩스, (주)비겐바디케어, (주)제이아이아이엔시, (주)케이.에취.제이,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1단계139기, 강경구, 강영희, 강순수, 강영자, 강임철, 강창운, 강태욱, 김사비한재우, 경영진, 故배근영, 고선자, 고은영, 고희춘, 공민호, 박민정, 구건우, 구교찬, 구로순복음학생부, 국윤석, 권순성, 권형규, 금현미, 금현정, 김건우, 김경선, 김경은, 김경자, 김광수, 김광애, 김광호, 김귀남, 김규리, 김규수, 김규자, 김기선, 김기용, 김나나, 김남선, 김다운, 김대일, 김도경, 김두한, 김보경, 김미경, 김미정, 김민규, 김민수, 김민찬, 김병수, 김봉자, 김상권, 김상대, 김선경, 김선교, 김선화, 김성식, 김성연, 김성운, 김성은, 김숙희, 김순천, 김순천, 김승환, 김시훈, 김애지, 김영숙, 김영은, 김영재, 김영정, 김영태, 김옥경, 김옥재(김기남), 김완용, 김완호, 김용석, 김용준, 김원기, 김윤정, 김안수, 김진도, 김정범, 김정숙, 김정향, 김조, 김종일, 김지수, 김지우, 김지환, 김진화, 김창희, 김태우, 김태자, 김태훈, 김향옥, 김현남, 김현우, 김현철, 김형식, 김희숙, 김희숙, 김희정, 나호진, 남기철, 남상숙,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남세영, 노선미, 노성숙, 노원호, 다루라 아카데미, 다일공동체, 대구경신고등학교학년5반, 대한사료주식회사, 도재일, 라경옥, 라이크베베, 맹은혜, 문세자, 문은하, 문준옥, 민수희, 민우경미, 민총식, 밀레어주375, 박경규, 박경순, 박관옥, 박나은, 박득현, 박만수, 박미경, 박민준, 박보희, 박봉환, 박상희, 박성배, 박세민, 박윤선, 박은숙, 박은희, 박인경, 박재연, 박정숙, 박정원, 박정임, 박진갑, 박총식, 박태정, 박학재, 박희선, 박희선, 방성자, 방주석, 배윤경, 백익수, 비겐생명공학, 상도소망교회, 상록자원봉사단, 새보2여전도, 서달석, 서머어린이집(전정현), 서명순, 서울대학교u3a동문화, 서정근, 성광재, 성영자, 성창기업(주)정림회, 손정아, 송란, 송옥순, 송은희, 송탄중앙침례교회, 송혜영, 신경화, 신동희, 신영진, 신성기, 신지현, 심수자, 쓰루뿌약100\$, 아디다스 케이.티.에스(주)서울지점, 아름다운민중교회, 아영이엔지, 안경호, 안수혜, 안승출, 안종길, 양경숙, 어떤사람, 엘비인베스트먼트(주), 예안교회, 예향고혜경, 예향김현정, 오미근, 오민자천사병원후원, 오상열, 오선하, 오세혁, 오정수, 오현진, 옥행진, 외교통상부, 우미자, 우수환(우철회), 위계틀, 위영옥, 유인수, 유상민, 유수형, 유은숙, 유정자, 윤다빈, 윤민형, 윤석, 윤석근, 윤숙영, 윤연자, 윤완용, 윤용석, 윤정혜아름다운사람들, 윤혜선, 이강국, 이경희, 이규레뉴하나인테리어, 이덕원, 이명일, 이명희, 이마수, 이미영, 이미자, 이병화, 이보영, 이상권, 이상숙, 이상훈, 이석호, 이선영, 이숙경, 이숙어, 이순열, 이숙희, 이신형, 이연희, 이영옥, 이영희, 이윤재, 이은경, 이은정, 이은정, 이지현, 이정미, 이주은, 이지민, 이지은, 이진규, 이창환(후원금), 이창재(정인식품), 이태진, 이화선, 이현아, 이현지, 이형용, 이혜선, 이혜자, 이호경, 이호석, 이안영, 일로제일교회, 임석준, 임순화, 임은희, 임일영, 장경녀, 장민욱, 장병호, 장은진, 장정자, 장주호, 장호민, 재향군인회, 전북한우협동조합, 전홍준(삼호동상), 정강규, 정건우, 정낙영, 정미선, 정법진, 정병훈, 정세호, 정옥순, 정은미, 정원준, 정우진, 정은영, 정정순, 정정자, 정준태, 정창호, 정현숙, 정현이, 조금숙, 조성준, 조승국, 조용경, 조윤희, 조은급식, 조태희, 조희성, 좋은일에, 주성희, 주형호, 진디자이공작소, 진희자, 최수진, 최승희, 최연희, 최영숙, 최은식, 최은주, 최은순, 최인아, 최정미, 최주희, 최향계, 최향광, 최혜영, 추경숙, 총현인, 카이스트금융11학번, 팬텀여주집, 표화자, 하윤, 하인철, 한국술파, 한정미, 한진순, 한창희, 허서구, 허연, 허재완, 홍기화, 홍성호, 홍영미, 황순연, 황어지니, 황재영, 황준성, AndrewChoi, fms코리아

반려나눔운동 후원

[후원금]

김찬홍, 장만형(부산), 최정재(금오초등학교동창회), 이희숙, 박종일, 김성옥, 최자희, 일산은혜교회, 이종욱, 수도권산악회, 이창순, 휘경여고 총단장, 재향군인회, 발명진흥회, 최성봉, 외교통상부, 산업연구원, 엠엔글로벌, 김보나, 서장선, 대한지적공사, 김두한, 김보경, 한국부동산연구원, 양순화, 김영태, 아디다스KTS, 서명순,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이숙경, 박태정, 박정원, 이신형, 하나사랑봉사단, 한진순, 3050아띠산악회, 대성교회, 동아제약, 글로벌비겐그룹, 비겐생명공학, 유인자(러피콜), 최경근, 이동열, 윤순옥, 조에이엠지코, 홍남숙, 에이엠지코, 윤순옥, 이동열, 국방홍보원, 허블라이프,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일옥, 하이트진코, 미래에셋, 배일환, 로크웰, 김완용, 태광-흥국생명, 델로이트회계법인, 정신남, 윤현숙, 권혜진(휘슬러비즈), 대한지적공사, 다하미커뮤니케이션, 상도소망교회, 윤민형, 김성철, 이창환, 신민숙, 홍경화, 김수일, 금호미쓰이화학, 서울유유, 남성교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소망교회, 부평갈리교회, 카이스트11학번, 권병렬, 4050수도권산악회, 엘비인베스트먼트, 동대문구사회복지협회

[후원물품]

11/21 두리반/김치
11/22 한국중부발전/김, 무명/쌀, 김치
11/24 김민수, 이초아/불독, 무명/쌀, 김치
11/27 한국중부발전/온누리상품권, 경흥농장/굴
11/28 두리반/김치, 재향군인회/라면
11/29 동방유통/닭
11/30 나눔스토어/쌀
12/3 나눔스토어/쌀, 한국감정평가원/굴
12/4 경흥농장/굴, 경희초등학교/김치, 좋은은, 홍주은, 홍은성/쌀
12/5 초은급식/우유, 황덕순/김치, 성결교회/쌀
12/6 가나다푸드/김치, 무명/굴

12/7 김기석/뽕, 방장원/뽕
12/8 방장원/뽕, 현대증권/김치, 동대문보건소/쌀
12/10 동방유통/닭, 경흥농장/굴, 유엔디코리아/폭립
12/11 두리반/김치
12/12 서울유유/우유
12/17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쌀
12/20 경흥농장/굴

[후원양정자]

김경은, 정세호, 황중성, 박정원, 이신형, 김윤정, 미들브라운, 김정향, 김옥경, 옥행진, 이순열, 조윤희, 이선영

< 해외분원 >

중국다일공동체

[방문&후원]

김성재(Obey & Praise), 이숙의(시카고 스마일, 스마일피기), 양차선교회(대표 허에스터 목사), 박종근 목사(모자이크교회), (주)소명철강, 이병준, 이현신, 평생후원자, 대전 동안교회, 한기모, 차지훈, 지준란, 한해연, 박예진, 심형, 이효원, 김학용

[성탄절 특별후원금]

훈춘시 부련회, 이숙의(시카고 스마일), 강영남(홍콩), 이연희(상해)

베트남다일공동체

[나눔회원]

포스코SOUTH ASIA, 아리랑화학, 대우 INTERNATIONAL, 사이공한인연합교회, 포스코베트남(600만동), 보민건설, 한글로 빌(600만동), 최용하가족, 성광고등학교동문회(400만동), 우리는행호치민지점(4,182,000동), 배중근(1,000만동), 포스코 ICT(62,832,000동), 뉴하이텍(26,746,000동)

[정기후원]

최혜림, 최혜인, 최기흠, 남승현, 김순자, 송윤서, 배준익, 후원미

[물품후원]

도넛도넛(도넛 128개), 포스코ICT(쌀 20kg, 바나나), 성광고등학교동문회(카스 타드 5박스, 축구복 20벌), 최용하가족(오구르트 130개, 사탕), 투레주르(뽕 200여개), 락앤락도시락용기 240개), 오리온(과자 300여개), 파리바게뜨(뽕 200개)

[모금함]

예가(36만동), 포스코베트남(323,000동), 최고집(342,000동), CHUNG(100만동)

[자원봉사자]

포스코베트남 조윤희, 우정재외12명, 대우 INTERNATIONAL 최시호외 8명, 포스코 SOUTH ASIA 김중성, 문준외 5명, 포스코 ICT 최동익, 김광석, 장준태, 박용남, 이달우, 정학선, 이택희, 김성태외 25명. 우리는행호치민지점 최철우외 10명, 성광고등학교동문회, 오덕, 신동민, 최재영외 7명, 호치민국립산업대학생 20명, 송재란, 이창순, 한 글로벌 한희준외 9명.

필리핀다일공동체

[방문&후원]

이희철, 필리핀PTS한인교회, 한상수, 김순예, 신동이, 필리핀오병이어교회, 지일환, 전용민, 신동환,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전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방문&후원]

한소망교회, 내동교회선교단, 서대문교회, 대한항공 승무원, 한국스카우트연맹 오경종 처장 외 7명, 한국기자협회 강진지회 남철희기자, 오상훈, 엘번순교회 캄보디아선교팀, 광주광역시 양경훈 가족, 광주광역시 수완중학교 "돈해똥"동아리, 도재일, 에이원감정평가법인, 허우진, 최현옥, 허규범, 허다현 가족, 이동호, 이주호, 민국, 제국, 창민이네, 성현우, 최재홍, 빨간펜(해남지국), 포콘스 정낙환사장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30%(최대 3만원)가 다일공동체에 가입회원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DAIL Community of USA Fax 1-770-813-0133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1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lightk@dail.org
후원계좌 씨엠립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프놈펜 국민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63-927-560-7346**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669
255-786-740-003**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5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영성수련



2013년
2월

2월19일(화) ~ 2월 23일(토) | 1단계 143기 아름다운 세상찾기
2월24일(주일)~ 3월 2일(토) | 3단계 16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성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여행이었다.”

-한비아(전 월드컵전 구호팀장)

설곡산 다일공동체 시설이용안내

설곡산다일공동체는 침묵의 성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 정신과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침묵과 노동속에서 구현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 섬김과 나눔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쉬를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자연치유센터
(대관 및 세미나, VIP룸)

화해와 일치의 집
(요양시설 및 예배실)

유일리테
1층 사무실
2층 요양리테 카페
3층 사기 공예실

나눔과 섬김의 집
(숙소 및 소예배실)



대표 최일도 목사
다일교회 설립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사회교육강사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7756-8004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1-0166-0367-83 예금주:이태형)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